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1월 14일(주일) 제1368호

## 팬데믹을 이기는 힘!

11월 17~19일 온누리회복축제 ... 서빙고 본당 및 온라인(Zoom) 이재훈, 박성심, 박상미, 박성덕, 오원웅, 남윤영, 이기원 강의

드디어 2021 온누리회복축제 '팬데믹을 이기는 힘'이 막 오른다. 11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누리회복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장(場)이다. 정신건강 전문강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온누리회복축제에서는 17일 이재훈 담임목사 오프닝 메시지, 박성심 사모(미국 심리치료사, 결혼과 가족 상담사) '네 안의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박상미 소장(더공감마음 학교 대표, 한양대 대학원 교수) '마음과 관계의 회복', 18일 박성덕 소장(연리지부부가족연구소, 정서중심치료전문가) '거리 좁혀서 극복하라', 오원웅 박사(마음공장 심리치료원장, 숭실대 대학원 겸임교수) '사랑의 비용을 지불하는 치유의 공동체', 19일 남윤영 박사(한마음정신회복예배 상담의,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과 관계회복', 이기원 목사(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장) '치밀한 관계의 힘'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치료 세미나(예배당 참가자)와 소그룹 모임(온라인 참가자), 토크쇼가 이어진다. 17일 '교회에서 만나는 미술치료' (정은선 박사), 회복의 소그룹1, 18일 '음악 속에 풍당' (김찬 소장), 회복의 소그룹2, 19일

토크쇼 '강사와의 대담'이 있다. 특순과 간증도 풍성하다. 손인경 교수(바이올리니스트)와 사랑채머, 스킷드라마, 김영미 권사(소프라노) 특순, 구인유 작가, 파워임팩트, 한마음정신회복예배 간증 등을 선보인다(관련기사 6면).

아직 온누리회복축제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11월 14일(주일)까지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이다. 10인 이상 단체 등록은 회비 1만 원이다. 온누리회복축제 참가자들은 집회 첫날(11월 17일) 접수데스크에서 등록 확인을 한 다음 교재와 명찰을 받고 입장하면 된다. 본당 입장은 9시 40분부터 가능하다.

회복축제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교회 들어올 때 바코드 및 열체크를 하고, 본당에 입장해서는 좌석 QR코드를 반드시 스캔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온라인 참가자들은 회복사역본부에서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하면 된다. 비디오는 켜고, 오디오는 음소거를 해놓아야 한다. 36개월 이상 초등 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의 경우 선착순으로 탁아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소는 본관 2층 썬터다. 유아 동반한 경우에는 자모실을 이용하면 된다. 교회 주차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문의: 02-3215-3532, 010-9578-9538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1 온누리회복축제



### 팬데믹을 이기는 힘

코로나시대의 정신건강과 영적인 돌봄

**2021. 11. 17(수)-19(금)**  
\*오전 10:00~12:30  
온누리교회 서빙고 예배당 & 온라인(Zoom)

**MAIN SPEAKERS**

|  |                                  |                                      |                                      |   |   |  |
|--|----------------------------------|--------------------------------------|--------------------------------------|---|---|--|
|  |                                  |                                      |                                      |   |   |  |
| 이재훈 목사<br>온누리교회 담임목사<br>CGNTV 이사장<br>한양대학교 이사장 | 박성심 사모<br>미국 심리치료사<br>결혼과 가족 상담사 | 박상미 소장<br>더공감마음학교 대표<br>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수 | 박성덕 소장<br>연리지부부가족연구소 소장<br>정서중심치료전문가 | 오원웅 박사<br>마음공장 심리치료원장<br>숭실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남윤영 박사<br>한마음정신회복예배 상담의<br>중앙대학교 상담사<br>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 | 이기원 목사<br>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장<br>Conwell Theological Seminary(D.Min) |

**SPECIAL GUESTS**  
김영미 (소프라노) / 손인경 교수 사랑채머 / 배시은 박사 / 구인유 작가 / 스킷드라마

### 11월 14일까지 엔젤트리 사연 접수

엔젤트리 게시판(QR코드)에서 신청

"고메즈는(4살, 감비아)는 왼쪽 발가락이 말발굽처럼 두 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예쁜 신발이 있어도 신지 못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찬양공동체와 여러 선교기관의 후원으로 서울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고메즈가 예쁜 신발을 선물로 받는다면 참으로 기뻐할 것 같습니다."



2021 엔젤트리 사연 접수를 11월 14일(주일)까지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전하고 싶은 이웃이 있다면 엔젤트리 게시판(QR코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물은 5만 원 상당을 고르면 된다. 2021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0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와 온라인 엔젤트리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434, 3436

###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2천2백명, 4억5천만 원 약정

'풍당' 스마트TV 앱, 웹 버전 개발, 콘텐츠 확보 등에 사용

지난 11월 6일과 7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실시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 온누리교회 성도 2천2백 명이 4억5천만 원(12월 집계 기준) 후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CGNTV는 기독교 OTT '풍당'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자체 콘텐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CGNTV 후원약정실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CGNTV를 후원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면서 "끝까지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는 CGNTV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CGNTV 후원금은 기독교 OTT '풍당' 스마트TV 앱 개발, 웹 버전 개발, 자체 콘텐츠 확보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CGNTV 후원 약정은 끝났지만 전화나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너희를 응원하고 기도한다!"

11월 18일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오는 11월 18일(목)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기도회가 이어진다(이후 5시까지 개인기도).

수능 당일 기도회에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타 교회 성도도 참석할 수 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도 진행된다. 11월 14일(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1부 예배, 양재온누리교회 2부 예배에서 수험생들에게 중보기도를 해준다.

문의: 02-570-7553

#### 공동의회

일시: 11월 21일 3부 예배 후  
장소: 양재 사랑홀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주요안건: 임직자 후보 투표

자녀교육 Q&A “아이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함께하는 놀이를 찾아라!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아빠들은 늘 일에 쫓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성취지향적인 성향이 아주 짙어서 “나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일한다.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불평하면 “내가 좋아서 이러는 줄 아니? 다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짓이야”라고 억박지르기도 한다. 목표지향적인 성향도 강해서 성취를 위해 일하고, 성취를 위해 체력 단련을 하기도 한다.

아빠들이 아이들과 노는 것이 매우 서툴 때가 많다. 아이들의 간절한 요청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에게는 놀이가 곧 일이자 학습이다. 놀이는 아이가 자발적으로 이끌어 가는 활동이며 기쁨, 재미,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결과보다 과정지향적이며, 목표보다 관계지향적인 활동이다. 문제는 아이들과 놀이가 단순한 감정적인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지적 발달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젖병을 빨고, 눈을 맞추고, 웅얼이를 하는 것도 놀이의 일종이다. 장난감을 들고 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다. 상상력과 공간력을 키우고, 언어를 발달시킨다. 아이들은 더 재미있는 놀이를 위해 필요한 언어를 빨리 습득한다. 다른 사람들과 놀이를 통해서 규칙을 배우고,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사회적 행동 양식을 습득한다. 반복적인 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법,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한다. 기쁨에 차서 소리를 지르고, 이겼을 때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등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

성시켜 준다. 달리기, 뛰기, 씨름하기, 매달리기, 기어오르기 등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서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신체 발달이 이루어진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놀이는 매우 중요하다. 어른들이 일을 해야 하듯이 아이들은 놀이를 해야 한다. 어른들에게 놀이가 일상생활이나 일에서 생기는 압박감을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하며 피로를 풀고 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놀이다.

놀이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아이들과의 놀이에서 아빠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영웅이자 힘의 상징이다. 아이들은 아빠와의 놀이를 통해서 안정감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아이들은 아빠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을 키운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아빠와 놀이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금방 지란다. 회사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아이들은 TV와 컴퓨터, 스마트폰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을지도 모른다. 더 큰 문제는 아빠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 할지 잘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롭다. 아버지와 아름다운 추억이 없다. 아이들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기도 한다.

놀이를 개발해야 한다. 단순할수록 좋다. 신체 접촉이 많을수록 좋다. 눈을 많이 마주치고 말을 많이 주고받을수록 좋다. 서로 감정을 나눌수록 좋다. 아빠가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못해서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놀이는 재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와 친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교육이 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오늘 당장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으면 좋겠다.

성경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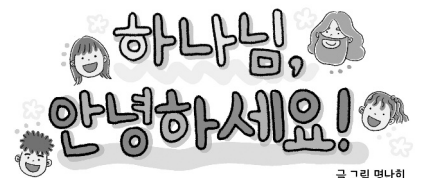
출제범위: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1단원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보기를 보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 1. 씨 뿌리는 농부 비유
- 2. 용서할 줄 아는 종 비유
- 3.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 4.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 5. 5가지 비유
- 6. 3가지 비유
- 7.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 8. 악한 농부 비유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n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9. 낱말퀴즈

우리들 작품



〈내 손으로 만든 성경 인물들〉

엄마랑 디폼블럭으로 예수님, 마리아, 요셉, 다윗, 솔로몬을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성경 이야기도 나누고 재미 있었어요! / 최주원 어린이(인천온누리교회 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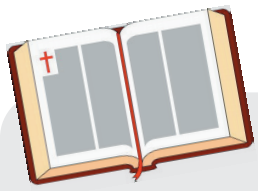
〈성경을 열면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을 읽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열쇠 같아요! 성경을 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까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는 그림을 그렸어요!

/ 백시은 학생(부천온누리교회 꿈땅)



\*악인이 이긴다는 사람도 잠시도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증거도 광범비(욘20:5)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

갈라디아서 3:1~14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위선에 대해서도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재판자이자 심판자가 되어서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전해진 순전한 복음이 초기교회부터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는 사람과 그 이면에 있는 거짓된 영의 공격에 대한 단호한 책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교훈을 줌과 동시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서 순전한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 율법, 세상에 대해 자유롭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연합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연결되고, 내 안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사건은 오직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믿을 수 있고, 그 보상으로 얻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적 심성, 인간의 자기 의를 추구하는 교만을 부추겨서 복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교훈합니다.

## 율법의 행위를 지키으로써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입니까?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

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율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던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1-5절).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 3절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한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으로써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갈라디아교회가 생길 때 성령님의 뚜렷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왜 율체로 끝내려고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율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혼에 붙어 있는 타락한 본성을 바울은 ‘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르침은 율체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체는 성령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체는 두 가지 모습으로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첫째, 분명하게 죄를 짓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율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성령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둘째, 교묘합니다. 율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으로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율체의 타락한 본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안타깝게도 죄의 세력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 율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자기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율체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 의와 위선과 교만과 자만에 빠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율체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그 열정이 우리를 삼켜 버립니다. 이것을 ‘독이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데 열심을 낼수록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의 세력이 되는 모순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성령 안에

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율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율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속이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갈라디아교회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던 이들이 사단의 속입수에 넘어간 것이고, 그들의 모습이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대상이었던 로마 가톨릭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율체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에 중세 교회에 비참하고 어두운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종교개혁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 만들어 온 수많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제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만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높임을 받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둘째,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소개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이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요 7:39).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단어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아서라는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야만,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임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끊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치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율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빠졌던 문제에 빠지고,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 가톨릭의 문제에 빠집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빠지고, 이 시대 무기력한 교회 모습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능력과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다툼과 분열이 나타납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규칙을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중세 교회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행 2:33).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높임 받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는 체험과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기억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중에 어느 기억이 더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공동체와 선교사가 만났을 때

# “감사합니다! 동대문중앙공동체”

## 안디옥열방교회 김종일 선교사의 고백

선교사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사역을 공동체와 함께하면 능히 해낼 수 있다. 터키에서 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안디옥열방교회 김종일 선교사와 동대문중앙공동체의 만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김종일 선교사는 동대문중앙공동체와 동역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맛보고 있다. 가장 든든한 동역자들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 김종일 선교사는 “앞으로도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주민 사역을 하고 싶다” 라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안디옥열방교회 김종일 선교사(왼쪽)와 터키 이주민들.

경기 북부에서 생활하는 터키에서 온 이주민들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안디옥열방교회’를 찾아간다. 김종일 선교사가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도와주기 때문이다. 터키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김종일 선교사는 대부(代父)로 통한다. 그만큼 터키와 터키인들을 잘 알기 때문이다.

### 터키에서 18년, 의정부에서 15년

김종일 선교사는 터키에서 18년, 의정부에서 15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다. 터키 선교 베테랑이다. 사실 국내 이주민 선교는 베테랑 선교사에게도 생소하고 늘 어려운 현장이다. 15년 동안 김종일 선교사와 함께 동역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이주민 선교를 지속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대학에서 터키어를 전공한 김종일 선교사는 C.C.C.에서 활동하면서 터키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그 서원대로 터키에서 18년 복음을 전했다. 터키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김종일 선교사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한 지 18년이 될 무렵 더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비자발적으로 출국 조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터키 선교밖에 몰랐던 김종일 선교사에게 추방은 너무 큰 충격이었다. 큰 실의에 빠지고 말았다.

“저는 터키 선교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방당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 끝에 한국에서도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종일 선교사는 경기도 포천, 양문, 양주, 동두천 주변에 터키에서 온 이주민들이 꽤 많이 있고, 그들이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정부 일대 교회 예배당을 빌려 터키에서 온 이주민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의정부는 터키와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터키에서는 정말 어렵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관계 맺고 복음을 전했는데, 의정부에서는 교회를 설립하고 사역하다 보니, 초창기를 제외하면 터키에서 온 이주민들이 알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도 없어서 매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 동역자들이 주는 기쁨과 힘 덕분에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매주 많게는 50여 명의 터키 이주민들이 김종일 선교사를 찾아왔다. 단순히 교제만 하러 왔으면 사역이 수월했을 텐데 터키 이주민들이 김종일 선교사를 찾아온 이유가 각양각색이었다. 저마다 사

연을 가지고 있었다.

“어디가 아프다, 월급을 못 받았다, 가족들과 통화하고 싶다, 고향으로 송금하고 싶다 등 제가 도움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덕분에 하루하루가 정말 바쁩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2008년에는 이주민들의 처우가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일당백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안 지칠 수 있었습니까? 그래도 회심하는 터키인들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고마운 동역자들도 하나 둘 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는 이 건물도 고마운 동역자분들이 기증해주셨습니다. 매주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는 게 정말 힘들어서 장소가 필요하다고 기도제목을 나눴는데 한 장로님이 공간을 쓰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과 집기, 미니버스까지 기증받았습니다.”

터키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지내는 기간은 1~2년 내외다. 대부분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 때문인지 터키에서 온 이주민 일부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 하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터키어와 무슬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평신도들의 선교적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민 선교 동역자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김종일 선교사와 동대문중앙공동체는 5년 전부터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5년 전에 동대문중앙공동체에서 안디옥열방교회와 동역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매월 한 번씩 함께 예배를 드리고, 터키 이주민들에게 맛있는 식사와 선물을 대접해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예배당이 텅텅비는데 동대문중앙공동체 성도님들이 오시는 날에는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예배당이 가득 차는 것보다 즐겁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동대문중앙공동체 성도님들이 매번 양손 무겁게 오시니까 터키에서 온 친구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웃음).”

동대문중앙공동체 성도들도 안디옥열방교회와 동역하면서 얻은 유익이 많다. 선교현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선교사와 터키에서 온 이주민 친구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유익이다. 그 덕분에 공동체 선교 영성이 날마다 뜨거워지고 있다. 주성대 집사는 안디옥열방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했다.

“터키에서 온 이주민들이 바로 저희를 찾아온 선교지였습니다. 이주민들이 정말 많고, 그 만큼 우리가 도움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사고를 당한 이주민 형제들을 섬기고 그 형제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터키에서 온 이주민 친구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주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집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 “이주민과 선교사들을 섬겨주시시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방문이 어렵다. 동대문중앙공동체 성도들은 몸이 못 가면 영상으로도 만나야 한다고 다짐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하고 있다. 11월 말에는 모처럼 안디옥열방교회를 방문해서 추수 감사예배를 함께 드릴 예정이다. 동대문중앙공동체 지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새로운 만남과 섬김을 기대하고 있다.

김종일 선교사는 터키에서 18년을 사역하는 동안 10여 명에게 세례를 줬는데 지금 의정부에서는 15년 동안 세례를 준 형제자매들이 70명을 넘고 있다. 동역자들이 주는 기쁨과 힘 덕분에 터키에서 온 이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날 수 있었다. 김종일 선교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고 했다.

“아직도 국내 이주민 선교를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수천여 명이 국내로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열방교회와 온누리교회 동대문중앙공동체가 동역한 것처럼 더 많은 선교사가 국내 이주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제3세계 환자들에게 의약품 지원

## 킹스웨이코리아 창립 1주년 그리고 비전

제3세계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단체가 있다. 킹스웨이코리아(Kingsway Korea)가 그 주인공이다. 킹스웨이코리아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의료접근성 및 시설이 너무 취약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의약품과 구호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온누리선교재단 산하 비영리 기관이다.

11월 14일 킹스웨이코리아 창립 1주년을 맞이한다. 창립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발자국이 선명하다. 전 세계 병원, 기관, 선교지 및 선교사들에게 의약품과 마스크 등의 구호 물품 전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마소망 선교사(가명, WEC선교회)는 지난 2007년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됐다. 미얀마의 첫인상은 낙후였다.

“시간이 멈춘 나라 같았습니다. 1, 2차 세계 대전 관련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버스와 기차들이 실제로 다니는 것을 보고 정말 낙후되고 발전이 안 된 나라인 것을 실감했습니다.”

낙후되고 발전이 안 된 나라의 의료 환경이 좋을 리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쿠데타 발발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미얀마 정부에서는 락다운(이동 제한)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1년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쿠데타가 발발했습니다. 쿠데타 반대 운동에 의사, 간호사, 변호사, 학자들이 앞장섰습니다. 군부에서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다보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많이 죽거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고, 병원은 마비되고, 가짜 약들이 넘쳐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어느 현지 목사님은 진통제 하나도 구할 수 없다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라고요. 이 긴급한 상황을 선교단체에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마소망 선교사의 손을 누군가 덥서 잡았다. 킹스웨이코리아였다. 킹스웨이코리아에서 지난 8월 미얀마에 1천5백만 원 상당의 11개 의약품(기침약, 감기약, 진통제 등)을 지원했다. 마소망 선교사는 그날의 감격

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약을 지원받은 미얀마 교회와 목사님들,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앙을 얻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이 약을 나눠주면서 ‘한국의 크리스천 형제자매들이 약을 보내줬다’고 하니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마소망 선교사가 킹스웨이코리아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면서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많은 선진국이 미얀마의 긴급한 상황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관심과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한 알의 약일지 모르겠지만, 미얀마 국민에게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귀한 약입니다. 킹스웨이코리아가 미얀마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미얀마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십시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헤브론의료원도 킹스웨이코리아의 지원을 받았다. 진은경 사무국장(헤브론의료원)이 캄보디아의 열악한 의료실정을 설명했다.

“캄보디아 의료실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의대가 두 곳밖에 없고, 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해도 취직할 병원이 몇 군데 없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은 100병상 정도 되는 중소 병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 수술



킹스웨이코리아가 WEC선교회를 통해 미얀마에 의약품과 마스크를 지원했다.

을 하는 몇 안 되는 병원입니다. 또 헤브론의료원은 프놈펜에 있는 유일한 무료병원입니다. 유료 환자 비율이 20%밖에 안 되고, 무료 환자가 80%를 차지합니다.”

무료 환자 비율이 80%나 되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킹스웨이코리아의 의약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제약회사에서도 의약품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킹스웨이코리아의 지원이 더욱 특별하고 감사합니다. 병원에 꼭 필요한 의약품을 선별해주시고, 유통기한도 넉넉히 남은 약들을 지원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병원과 운영진,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원해주는 의약품에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가난하고 아픈 환자들을 더 잘 낫게 하고, 더 열심히 보살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헤브론의료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의 환자들에게 킹스웨이코리아의 마음을 잘 전하겠습니다. 큰 사랑과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킹스웨이코리아, 효율적 의료선교 통로

킹스웨이코리아는 모든 사역을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과 기부금, 제약회사와 기업에서 위탁받는 의약품으로 한다. 킹스웨이코리아는 지난 1년 동안 총 후원금 1억3천4백만 원과 1억6천5백만 원 상당의 의약품과 물품을 후원 받았다. 그중에서 1억2천8백만 원 상당의 의약품은 기관(온누리M센터, 2000선교본부, 사회선교부 등)과 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요양병원 등), 선교지(캄보디아 헤브론의료원, 필리핀 세계선교신학교 등)에 전달했고, 2천2백8십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선교지에 보냈다.

양성민 목사(킹스웨이코리아 담당)는 “여러 제약회사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선교지에 꼭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킹스웨이코리아가 효율적인 의료선교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순 장로(CMN)는 “CMN, 2000선교와 협력하는 킹스웨이코리아 활동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축복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문의: 02-570-7517

후원: 우리은행 1005-104-063521 (재)온누리선교재단Kingsway Korea

### 사역칼럼



박동현 회장  
(주)메지온 회장,  
킹스웨이코리아  
설립자 및 대표

제3세계 국가 등 대다수 선교지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하다. 선교지에서는 몸이 아플 때 우리처럼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증상을 말하고, 약을 처방받고, 그 용법대로 약을 복용하지 못한다. 약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약이든 먹고 없으면 참아야 한다. 그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한다. 나는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아픔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

운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방법을 찾았다.

미국의 킹스웨이 채리티(Kingsway Charities)를 알게 되었다. 제약회사에서는 효능에는 이상이 없는데 다양한 이유로 유통이 어려워져서 약품들을 폐기할 때가 있다. 킹스웨이 채리티는 제약회사에서 폐기하는 약품을 기부받아서 의료선교를 하러 가는 선교사나 봉사자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약을 폐기하지 않아도 되고, 생명이 살리는 일거양득 방법이다. 선교지에 약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다. 나는 국내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다. 6년 동안 준비 기간

을 가졌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사역을 중단할 뻔하기도 했다. 그래도 선교지의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인도해주셨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도움으로 온누리교회와 연합해서 이 사역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러 제약회사에서 많은 의약품을 기부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셨다. 온누리교회 2000선교와 CMN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을 덕분에 킹스웨이코리아가 1주년을 무사히 맞이할 수 있었다.

킹스웨이코리아가 더 많은 선교지, 더 많은 선교사와 연결되어서 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킹스웨이코리아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의약품, 의약외품, 생필품, 화장품 등)이 필요하다. 부디 많은 성도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의약품과 재정 후원, 물품 기부로 킹스웨이코리아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전하는 일이 될 거라 믿는다. 킹스웨이코리아가 5년, 10년 뒤에도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킹스웨이코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소망한다.

### 더 많은 선교지, 더 많은 선교사에게

2021 온누리회복축제를 앞두고

# 정서적 치유에서 하나님과 동행으로

## 성경적 회복 '기쁨의 샘' 이 걸어온 길

코로나19 시대 '정신건강 증진'과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2021 온누리회복축제가 '팬데믹을 이기는 힘'을 주제로 막 오른다. 오는 11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본지에서는 2021 온누리회복축제 강사들의 글을 연재하고 있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구인유 작가(온누리회복사역 '기쁨의 샘' 인도자)다. / 편집자 주



구인유 작가  
(〈아바의 팔베개〉,  
〈대화식 말씀기도〉  
저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적 침체와 우울을 겪는 성도들이 종종 보인다. 예배, 섬김, 교제 가운데서 여태 건강하게 생활하신 분들이 두해가 넘는 격리 기간 동안 영적 빠대, 근력, 면역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는커녕 우

울 바이러스로 쇠약해진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원수의 포로가 되었지만, 교회 대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다(겔 11:16).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각자 신앙의 현주소를 되짚어 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찢어버리신 지성소 휘장을 다시 꿰매는 일은 없는가? 둘째,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에게로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섰는가? 셋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은 대체 무얼 바라고 순종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회복사역을 마음 아픈 이들이 고침 받는 치유사역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영육간 문제와 치료에만 집중할 때 안정적 회복이 과연 가능할까?

나는 열두 해 가까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대화식 말씀기도, 성경적 집단상담, 신학 및 상담수업을 받았다. 이 기간에 탁월한 상담사이신 하나님이 돌림이 같은 내게 당신의 복음을 다각도로 비추주셨다. 그리고 깨달았다. 근원적 치유와 회복은 문제 분석과 잠정적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주님께서 뜻하신 한없는 기쁨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고 나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체험하고 검증하고, 확신하게 되었다(요 15:10~12, 히 12:2, 욥 38:4~7, 사 65:17~18).

1988년 열두 해 동안 앓던 우울증이 비로소 사라졌다. 주님을 받아들인 이후 하나님은 다양한 성경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셨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지 열두 해 지난 2004년 온누리회복사역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경청과 지지로 돌보는 지원그룹(Support Group)에 참여했다. 이듬해부터 지원그룹을 넘어 성경적 집단상담인 '우울로부터 회복(GOOD: Gettin

g Out of Depression)' 소모임을 시작했다. 그 소모임이 지난 2012년 주님이 매일 부여주시는 기쁨으로 부활의 삶을 추구하는 '기쁨의 샘(SOJOY: Springs of Joy)'으로 거듭났다. 2004년 12명 정도 참여했던 기쁨의 샘 소모임이 2019년(코로나19 사태 전) 50명 정도 모였다. 평범한 일상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 먹고 자고 상의하고 일하고 놀고 쉬는 연습을 계속했다.

### 영적 성숙을 향한 세 가지 훈련

처음에 경청과 지지로 시작된 치유모임이 성경적 직면을 넘어 '지금 여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 변화해온 모습은 영적 유아기에서 사춘기로, 사춘기에서 청년기로 성숙하는 발달과정과 비슷하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주요 관심사에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도록 이끄셨다. 성장기 트라우마 넘어 에덴의 트라우마로, 자존감 향상 넘어 정체성 확인으로, 회복 탄력성 넘어 복음 탄력성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걸음이었다.

거듭난 우리를 오늘도 거세게 압박해 오는 두 현실이 있다. 거친 과도처럼 각자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드러내며 한없이 주눅 들게 하는 땅의 현실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이후 각자가 흠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엄연한 하늘의 현실이다. 이 두 현실은 늘 우리를 팽팽한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때마다 하늘의 현실로 땅의 현실을 다스리는 구체적 연습을 계속 한다. 영적 성숙을 향한 세 가지 훈련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단기치유에서 장기회복으로 나아가기'다(표 1) 참고. 단기치유가 영적 아동기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장기회복은 청년기로 성숙하는 과정이다. 단기치유가 영적 응급실이나 병실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을 받는 수동적 단계라면, 장기회복은 주님 안에서 통원치료와 홀로서기 훈련받으며 주님 모습 따라 성숙해가는 능동적 단계다. 단기치유가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은혜라면, 장기회복은 하나님 은혜에 반응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잠시 반짝이는 단기치유에만 머물러 장기회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영적 유아기나 발달장애에 갇힌 나머지 끊임없는 환난 앞에서 계속 쓰러질 것이다. 영적 빠대와 근력이 탄탄하지 않아서다. 근본적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과의 연합, 기쁨, 순종에서 가능하

다는 사실을 19년째 온누리회복사역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다. 정서적 고통을 겪는 이들은 대부분 부정적 자의식에 갇혀있다. 나를 보고, 주위를 보고, 앞날을 걱정하는 자의식(自意識)은 인간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밧이다. 자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식(主意識)을 연습한다. 생각과 상상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기는 훈련이다.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주의식 7단계가 있다. '명토목찬일지문'이다. 1단계, 마음 무거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기대 내려놓고 주님 얼굴 '멍'하니 바라보기, 2단계, 한 단어 나 몇 단어로 된 '토'막 말씀으로 주님과 얘기하기(종일 혹은 한 주 내내), 3단계, 외울 수 있는 짤막한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나 '묵'상하기, 4단계, '찬'송가 관련 말씀과 가사로 기도한 다음 오직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찬양하기, 5단계,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얘기하고 일하고 놀고 쉬기, 6단계, '자'연·사람·환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진선미(眞善美) 잡잡히 바라보기, 7단계, 세상 '문'화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선미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반(反)성경적 내용을 두고 중보기도 하기다. 영적 상태에 따라 주의식 7단계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한계에 부딪친 신앙 넘어 복음탄력성으로 나아가기'다(표 2) 참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진 이들은 공통적으로 복음의 사각지대를 갖고 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매우 드물거나 형식적이다. 초대교회처럼 신율법주의에 빠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창조, 타락, 구원, 성화의 메타내러티브에서 핵심 말씀이 선포하는 복음의 원규모를 살피며 평범한 일상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구체적 방법을 탐색해 간다.

'기쁨의 샘'은 지난 17년 동안 정서적 고통의 성경적 치유에서 시작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연합과 동행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변화해왔다. 사역 초기에는 다양한 배경(우울, 중독, 편집, 공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조현병 등)을 가진 이들이 참여했다. '우울로부터 회복'에서 '기쁨의 샘'으로 변화하면서 하나님

과 친밀함을 추구하려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 지금은 치유 대 친밀 비율이 1:3 정도 분포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삶, 하나님과 기쁜 동행이 온누리회복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주님께서 친히 빛으신 숙성된 콘텐츠를 성도들이 알아보고, 들어보고, 참여해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표 1〉 단기치유에서 장기회복으로 나아가기

| 단기치유(예: 내적치유, Tres Dias 등) | 장기회복(예: 회복 소그룹 공동체)      |
|----------------------------|--------------------------|
| 단기적(우리 요구와 맞음)             | 장기적(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요구함)     |
| 혼수상태 → 평균적 건강              | 평균적 건강 → 하나님이지으신 모습으로    |
| 일시적 완화                     | 성품 변화                    |
| 성령세례                       | 성령충만                     |
| 과거의 치유                     | 삶의 변화(현재와 미래)            |
|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1명이 감사)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욥 42:5) |

〈표 2〉 복음탄력성으로 나아가기

| 주제             | 한계에 이른 신앙의 벽                                 | 벽을 뚫고 나아가는 복음탄력성  |
|----------------|--|---|
| 임마누엘           |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                              | 그래? 그럼 주님과 김치찌개 먹어봤어?   |
| 찢어진 휘장 다시 꿰매기? | 주님 쏟으신 피가 내 죄를 씻었어. 그래도 내가 깨끗해야 성소에 들 수 있겠지? | 찢겨진 휘장 사이, 열린 성소로 네 모습 그대로 들어간 후에야 주님이 널 깨끗케 하실 수 있을 텐데.        |
| 보는 것과 믿는 것     |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 만나긴 너무 어려워.              | 보이는 것만 믿어서가 아닐까? 나는 믿는 걸 보고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 얼굴 보고, 음성 듣고, 함께 걸어가지. |
| 모순된 믿음         | 날 위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 오늘밤, 잠 못 드는 널 팔베개 해주는 주님이 믿기지 않는다고? 믿기 어려운 건 잘 믿으면서?            |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 영적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공동체 활동에도 방관적인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심적, 영적으로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우울합니다. 삶의 의욕도 생기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울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영적 외로움과 우울한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힘든 고민을 나눠줘서 감사하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마주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격리와 단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와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공동체와 예배의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 예배드릴 때는 환경은 당연하게 여기고 찬양과 말씀에만 많은 가치를 두었다. 그러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찬양과 말씀인데 그 느낌이 이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모이지 못한다는 작은 조건의 차이가 큰 경험의 차이로 이어진 것이다. 그동안 예배드리면서 의식하지 못했던 구별된 공간과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을 채워왔던 시간, 공간, 습관, 관계, 다양한 섬김이 아무 의미 없이 전통을 따라 관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필요했기에 주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을 받게 되었다. 직접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소모임 등 관계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험의 결핍,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

울은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제한된 상황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울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울함이 생길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도 슬프거나 아플 수 있다. 슬픈 일에 슬픔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픈 일에 아픔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뻐하는 것은 건강하거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감정이 건강해진다.

택해야 할 것이 자명하다. 예배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공동체 모임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서 현장 예배 좌석이 확대되고 있다. 속한 공동체 예배당 예배에 꼭 참여하기를 권한다. 온라인으로라도 순예배에 꼭 참여하면 좋겠다. 온라인 순예배가 대면 순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관계의 결핍을 보완할 대안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관계는 결코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는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공동체가 곧 순 개편을 한다. 곧 대면 순예배도 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 결핍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깨달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를 소망한다.

**“영적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해야 할 것이 자명하다.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공동체 모임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관계의 결핍이 큰 상실을 가져다주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법이다. 육신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경험과 관계의 결핍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허기는 유쾌한 감각이 아니지만, 신체 이상에 대해 신호를 보내는 것은 건강한 반응이다. 마찬가지로 관계의 기쁨이 결여된 상태에서 고독과 외로움, 이로 인한 우

그러서 아픔과 고통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다. 정말 슬퍼할 것으로 슬퍼하고, 아파할 것으로 아파할 수 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를 상실함으로써 갖게 되는 외로움과 우울함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외로움과 우울은 중요한 것의 결핍에 대한 마음의 신호이다. 본인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고 도움 청하는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다.

지금의 영적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코너는 청년들의 신앙과 삶의 고민, 질문에 대해 대학청년부 목회자들이 조언과 격려를 건네는 코너이다. 고민 및 질문 보내실 곳: [joo@onnuri.org](mailto:joo@onnuri.org)



김은식 목사 (W청년부)

## 크리스천을 위한 가족상담

#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기타를 처음 배웠을 때가 생각난다. 기타를 멋있게 치면서 찬양 인도하셨던 선생님의 모습이 보기 좋아서 단기 속성 기타 클래스에 고민 없이 지원했다. 처음 잡아봤던 기타는 음악적인 감각이 부족했던 나에게 신기할 따름이었다. 각기 줄의 굵기가 다르고 서로 내는 음이 달랐다. 각 줄을 어느 정도 팽팽하게 당겨야만 음을 낼 수 있었다. 더 신기했던 것은 각자 줄의 음이 있다는 것이었다. 각자 다른 소리와 긴장 상태를 가지고, 각기 다른 음을 내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최적의 컨디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었다.

가족 간의 긴장과 가족의 체계 등을 들여다보면서 기타의 하모니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구성원은 각자 감당해야 할 긴장감 혹은 삶에서 감당해야 할 짐이 있다. 이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자신만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신의 기대를 자녀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양육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기대를 말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악기의 각 줄에 적합한 소리가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가 달란트를 발견하고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을 발현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악기의 줄이 느슨하거나 다른 줄과 너무 가까워서 경계선이 얽히게 되면 연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성장할수록 경계선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생각에 자녀는 늘 부족하고, 물가에 내어놓은 것 같은 불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 스스로 경계선 안에서 성장하고 인생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모가 성장하는 자녀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한 성인으로 자라는 것을 격려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자녀의 삶에 ‘노크’ 하는 것이다. 아무 때나, 느낌 가는 대로 자녀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경계선 침범이다. 특히 자녀가 결혼했다면 더더욱 노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간섭하기 쉬운 부분은 재정적인 면, 심리적인 면, 정서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면 자녀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여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본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융통되어 자녀를 조종하

려고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을 위한 부모의 올바른 역할이 아닐 것이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부모의 불안과 염려와 미해결된 정서가 자녀에게 무작정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모의 불안은 부모의 불안에서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다. 잦은 염려와 걱정 등 삶의 어두운 정서가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는 한 가족이면서 독립되어 있다. 특히 결혼한 자녀라면 부모와 자녀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분화되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한 자녀는 원가족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핵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가족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소리를 내며, 원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만의 음을 내며 살아가야 한다. 삶에 주어진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감, 순간순간 해내야 하는 발달 과제를 완수하면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 압박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방해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힘과 권력은 부모가 가진 경우가 많다. 통제력 발휘에 대한 욕구가 많을수록 힘과 권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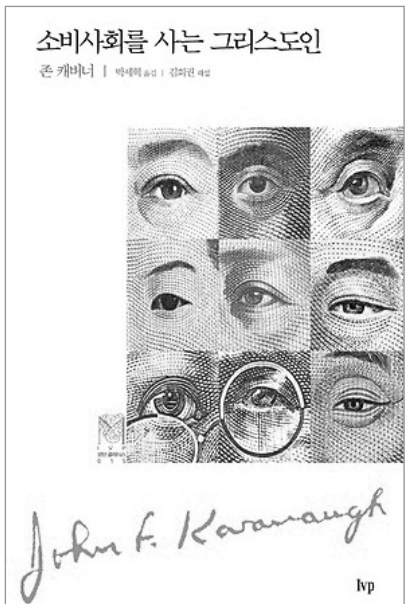
심히 어렵다. 순종하는 착한 아이로 살아왔다면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주장,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게 몹시 힘들다. 나의 삶이 아니라 부모나 타인이 원하는 삶을 무의식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 성장해서 원가족을 떠나 결혼했는데 때때로 주어지는 부모의 과잉 친절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용기 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신의 바람을 원가족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자기주장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자신과 결혼한 가정, 원가족에서 주어지는 긴장을 스스로 감당하고,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모 자녀 관계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와 자녀 간 건강성이 회복되고, 건강한 가족 체계가 완성되기를 바란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 과거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존 캐버너 저 | IVP | 19,000원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과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과잉생산에 따른 과잉소비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을 사회

학에서는 ‘소비사회’라고 부른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남아도는 잉여상품을 억지로 소비하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다. 남들이 유행에 따라 옷을 사고 신발을 사면 나도 소비욕구 때문에 사고 싶어진다. 소비시대를 살아가는 타인의 욕망은 곧 나의 욕망이 된다.

현대인들의 삶의 가치는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고 흉내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모자라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소비자들의 소비욕망을 높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가짜 이미지 마케팅과 광고를 만들어낸다. 피곤에 지친 현대인들은 자고 일어나면 쏟아져 나오는 상업용 광고로 인한 정체성 상실과 채워질 수 없는 무한 소비 욕구로 내면의 공허함에 시달린다. 이러한 소비사회에서는 당연히 구매력의 수단인 돈이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주의와 맘몬사상을 가지게 되면서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생활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기는커녕 물질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자본주의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 세속주의의 도전 앞에 침묵하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교회 문화를 ‘소비자 기독교시대 (consumer Christianity)’라고 부른다. 세상처럼 점점 물량화되고 계량화되는 소비사회에서 인격적 만남보다 소비주의적 만남이 일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모든 프로그램이 영혼 없이 상품화하고, 마케팅해서 진정성 없는 만남을 습관적으로 갖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게다가 오늘날 예배와 양육 프로그램들은 하나님보다 나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감상주의적 기독교로 인해서 설교조차 또 하나의 소비하는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 나의 개인적 취향을 무시하면 다른 곳에서 쇼핑하면 그만인 세상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속화되는 시대를 단호히 거부하고 예언자적 외침을 내야 할 교회의 대항문화가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되었다.

이 목마른 계절의 시대, 존 캐버너는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깨우는 선지자적 메시지를 책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일갈한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저항, 자발적 소외와 고립,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실천에 역점을 두고 대안 문화를 따르라”고 선포한다.

지난 2년 동안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라는 사상 초유의 문명사적 대전환의 경험을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의 기원은 소비사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생태학적 증거들이 있다. 후기 자본주의사회의 무분별한 소비문화는 유한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인간의 물질적 만족과 편리함을 위해 동식물을 무참히 훼손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무한 경쟁 프레임 안에서 자행했다.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는 시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내면을 성찰해야 한다.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자연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공생하는 경제 질서만이 향후 기후변화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사회선교적 차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를 역설한다. 자기 욕망의 절제와 불행 감수, 이웃 사랑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 불만한 영화

### 악을 선으로 갚는 크리스천



〈사비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나치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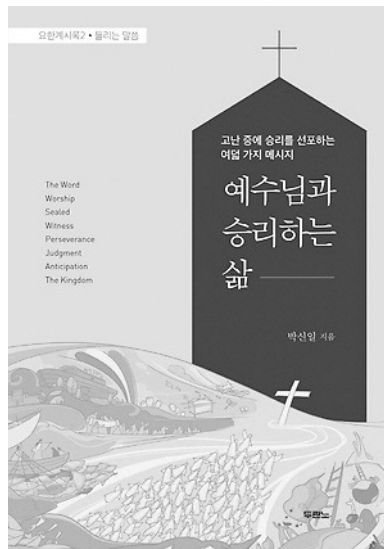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이 종반으로 치닫던 1944년 겨울, 소련군이 루마니아로 진격했다.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독일 나치 군인들이 일순간에 쫓기는 사냥감 신세가 됐다. 부하들을 데리고 소련군에게서 도망치던 디에터 대위는 유대인 사비나의 도움을 받게 된다. 사비나가 디에터 대위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나치 추종자들의 총에 가족 모두를 잃고도 남편 리처드와 함께 독일군을 탈출시키는 일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를 들려준다.

영화 〈사비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나치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군인들을 용서하고 탈출을 도운 유대인 크리스천 ‘사비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주인공 사비나는 1913년 루마니아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남편 리처드 웹브란트와 결혼한 이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사비나의 남편 리처드 웹브란트는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이나 이어진 고문과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킨 목회자다. 사비나는 국제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설립자다.

영화 〈사비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나치의 시대〉에서는 사비나와 리처드 부부가 가족을 죽인 나치 군인들을 용서하고 탈출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11월 25일 전국 극장가에서 개봉한다.

## 두란노 신간

###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결론



〈예수님과 승리하는 삶〉  
박신일 저 | 두란노 | 15,000원

성경 66권 중에서 유독 이해하기 어렵고, 괜히 읽기 두려운 책이 있다.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수많은 이단이 탄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부터 겁을 먹는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이 대부분 예언된 미래의 일이 언제 일어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고 묵상할지에 쏠려 있다. 누군가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바르게 풀어주기를 원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

〈예수님과 승리하는 삶〉에서 저자는 요한계시록은 신비를 담은 책도, 두려운 책도 아니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승리를 전하는 책”이라고 설명한다. 요한계시록 역시 다른 성경 65권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성경의 결론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한다.

책 〈예수님과 승리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간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러 상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적용점을 제시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갖가지 이유로 미뤄두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말씀의 은혜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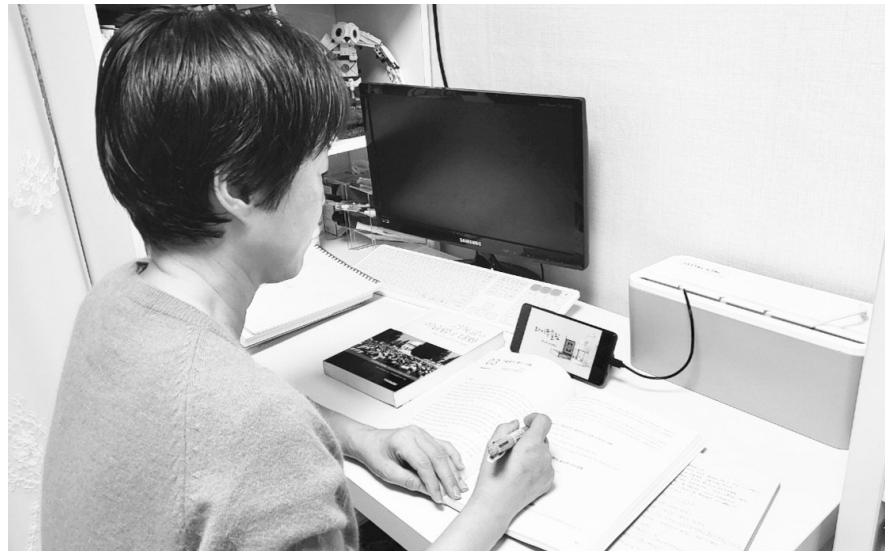
제1368호 | 2021년 11월 14일(주일)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 와이무슬림 수로 간증

지구상 다수의 인구 중에 무슬림이 있다. 그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경제력이 높아지고 지배층이 되어가고 있다. 테러와 내전, IS 등 말로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 또한 이슬람 국가의 국민이다. 그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고, 세력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지금까지 나에게 무슬림은 언젠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날이 올지도 모르는 두려움의 존재였다. 그러나 실제로 만난 무슬림은 친절하고, 가족애가 넘쳤으며, 소박하고 겸손했다. 가난하고 소외된 그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더욱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코로나19로 인해 와이무슬림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슬림에 대한 지식을 얻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와이무슬림' 과정을 신청했다.

와이무슬림 1주 강의부터 신청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슬람에 대한 역사와 수니와 시아, 칼리파 등으로 나뉘는 종파 등을 배우면서 이슬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무슬림이 되기 위해 유일신으로서의 알라와 무함마드를 포함한 예언자들, 천사들과 각 성서, 내세와 정해진 운명에 대한 6신(믿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신앙증언(샤하



오선숙 성도(인천온누리교회)는 와이무슬림 강의를 들으며 무슬림을 이해하고 배웠다.

다), 예배(살라트), 금식(사움), 순례(하즈), 구제(자카트)를 행해야 한다는 5행(행함)을 배우면서 이슬람이 얼마나 행위 구원의 종교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의 형태와 규모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치원부터 청년세대를 포함하는 다음세대를 향한 그들의 포교전략이 다양하고 세밀하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류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다. 중동 국가들이 IS로 인한 이슬람의 실체와 폭력성에 대해 눈을 뜨고, 복음을 들은 무슬림 난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에 감사가 절로 나왔다. 온누리 교회 아랍어 예배와 하비스트 등을 통한 선교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기대감을 갖게 했다.

6주 동안 와이무슬림 강의를 들으면서 무슬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계획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와 부활의 소망을 누리야 할 우리의 형제자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와이무슬림 7기를 수강하는 동안 줌(Zoom)으로 함께 토의하고 기도했던 조원들과의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했다. 무슬림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걸음 또한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다.

미용사로서 내가 가진 은사를 무슬림 사역을 위해 나누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한다. 그 길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백성 무슬림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함께 기뻐 찬양할 것을 소망하면서 무슬림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것이다.

/ 오선숙 성도(인천온누리교회)

## 무슬림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참가자 간증

낙태 합법화 반대 및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는 캠페인을 하는 '아름다운 피켓'의 대표로서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다.

아름다운 피켓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 동안 열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이하 생명 기도 캠페인) 개신교 대표로 섬겼다. 특히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린다. 아직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태아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는데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

이번 생명 기도 캠페인은 국제적인 기도 캠페인 단체 '40 days for life'와 연계해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피켓팅(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일)을 1인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잠잠히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 피켓을 든 사람은 한 명뿐이었지만, 인근에서 많은 분이 기도해주셨다. 현장에 나오지 않는 날에는 각 가정에서 기도해주셨다. 공동체와 주변에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 동참을 독려해주셨다.

어려움도 있었다. 환영받지 못해 시위 장소



서윤화 목사(아름다운 피켓)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온누리교회의 참여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해했다.

를 옮기기도 했고, 날씨가 점점 추워졌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캠페인 참여는 지속적이면서도 뜨거웠다.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 태아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이와 같은 가치 있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낙태 유경험자들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로 치유 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

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낙태 경험으로 고통에 묶인 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태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 "기도만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 아름다운 피켓과 생명을 위한 기도

들, 태아 발 배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귀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이번 생명 기도 캠페인에 온누리교회의 참여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생명을 위한 기도 참여에 냉담한 한국 교회들로 인해 40일을 눈물로 보냈을 것이다. 그동안 무관심한 교회들을 보면서 흘린 눈물이 미소로 바뀌었다. 40일 동안의 캠페인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 올해처럼 따뜻한 가을이 없었던 것 같다.

태아 생명 존중을 위한 기도를 멈추서는 안 된다. 사회를 향해 따뜻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전하는 캠페인도 이어져야 한다. 아름다운 피켓에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아름다운 피켓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포리베', '갓이즈프 로라이프',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리베'를 구독해주시고 공유해주시면 좋겠다.

문의: beautifulpicket@gmail.com

/ 서윤화 목사(아름다운 피켓 대표)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우리 부부도 행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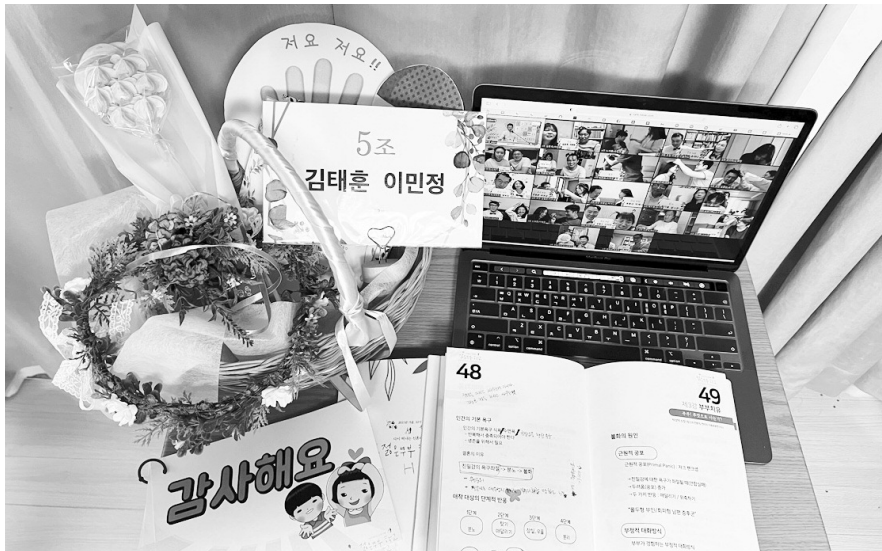
‘좋은 부부 관계가 노력해서 되는 거였으면 이미 변화가 되고도 남았겠지...’

젊은부부학교 강의를 듣기 전 솔직한 나의 마음이었다. 하버드대학교, 서울대학교에 갈 사람이 따로 있듯이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따로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인지 늘 어긋나고 삐걱거리는 우리 부부 관계에 별 기대감이 없었는데 젊은부부학교 광고를 보자마자 내 손이 절로 움직였다. 정신 차려 봤더니 어느새 젊은부부학교 수강신청을 끝낸 뒤였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어딘가에 우리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젊은부부학교 강의를 시작됐다. 조장님과 먼저 통화했다. 대면으로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조장님과 통화하면서 관계 회복에 지쳐있던 나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라는 부정적인 마음까지 전부 말했다.

“자매님 정말 외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조장님의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저 내 상황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듯한 말에 마음이 활짝 열렸다.

나와 남편의 마음이 가장 많이 회복된 시간



김태훈, 이민정 부부(양재온누리교회)는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부부 관계 회복을 누렸다.

은 3강 ‘부부치유’와 밤에 진행된 미니콘서트였다. 감사님이 들려주시는 원만하지 않았던 본인의 결혼생활 이야기에 위로를 얻었다. 마치 우리 부부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다. 성실하고 착한 감사님에게도 우리 부부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위로가 됐다. 또한 “관계는 생명과도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크게 공감했다. 우리 부부는 죽

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복을 다짐했다. 감사님의 회복된 행복한 결혼생활이 내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다. 우리 부부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기 때문이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이해지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남편은 매일 젊은부부학교를 수강하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노력하는 남

편이 참 고마웠다.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함께 결단해주고 노력하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사랑이 샘솟았다.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래도 변화를 위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이다.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동지애가 느껴졌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부부공동체가 있으면 어려움을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부부 관계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건강한 만남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건강한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더 많은 회복과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싶다.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하는 동안 매주 집 앞까지 찾아와 깜짝 선물을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우리 5조가 젊은부부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조장님 부부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써주신 그 정성 덕분에 감동이 배가 되었다. 우리 부부도 행복할 수 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 김태훈, 이민정 부부(양재온누리교회)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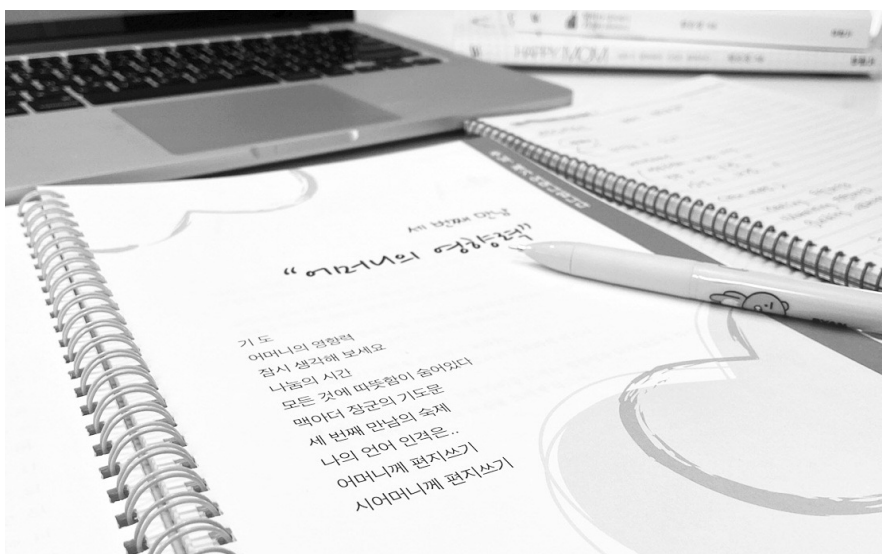
이제부터 시작이다!

두란노어머니학교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쁜 좋은 엄마,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이다. 육아하면서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소개하려고 했다. 그런데 얼떨결에 내가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수강하게 되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첫날 강의를 정말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내 마음이 흔들렸다. 강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나는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굳이 이걸 반복해야 하나 싶은 교만 내 마음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

얼마 못 가 그 교만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터졌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수강 중에 찾아온 추석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과 친정에서 싸워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렸다. 아이들한테도 미안해지는 상황이 생겼다. 두란노어머니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마저 올라왔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함께 나눔 하는 조원들은 나쁜 행복하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하나님께 여러 번 외쳤다.

“하나님 더 이상 두란노어머니학교 안 하고



강성희 성도(인천온누리교회)는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배웠다.

싫어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은 건가요? 왜 우리 가정만 이런가요? 변화도 없고, 돌파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부족한가 봐요.”

하나님께 투정 부리면서 영영 울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여지없이 내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다. 강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끝났다. 강의가 끝나

고 향기님에게 전화가 왔다. 나를 위로하면서 “지금 잘 가는 과정”이라고 격려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두란노어머니학교를 통해서 찌꺼기들까지 해결하고 나면 더없이 행복한 부부 아래 자녀들만 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뻐다.

두란노어머니학교가 ‘왜 여자들만 배려와 희생을 해야 해?’ 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찾게 해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고, 온전할 수 없는 남편에게는 반드시 돕는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서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부르심에 가까이 순종하면 온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체험했다.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싶다.

두란노어머니학교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내게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이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받은 사랑과 지지와 격려가 얼마나 따뜻하고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 조원들과의 인연도 기쁘고 감사하다. 이 인연을 이어갈 것이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두란노어머니학교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를 응원한다.

/ 강성희 성도(인천온누리교회)



제6회 KGMLF에서 이재훈 담임목사가 인사하고 있다.

## “더욱 성숙하고, 하나 되는 교회”

###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 감사예배

남양주온누리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지난 11월 7일 남양주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 감사예배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주영광 찬양사역팀의 특송, 축복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17년 동안 남양주온누리교회를 이끌어 오

신 하나님과 열약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성숙하고, 하나 되는 남양주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남양주온누리교회는 다섯 번째 캠퍼스 교회다. 2004년 11월 7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지역사회 복음화와 긍휼사역, 선교에 힘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

## 선교의 자전과 자립에서 재정적 중요성

### 제6회 KGMLF 국내외 선교리더십 100여 명 참석

제6회 KGMLF(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포럼)가 ‘선교와 재정’을 주제로 지난 11월 9일(화)부터 12일(금)까지 강원도 평창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조나단 봉크 박사,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 벤 토리 신부 등 국내외 선교 리더십 10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서 사례 연구와 워크숍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선교리더십들은 선교의 자전과 자립에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6회 KGMLF(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포럼) ‘선교와 재정’에서는 아프리카, 인도, 한국, 유럽권에서 자전과 자립이 이뤄지고 있는 선교 사례, 재정 관리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가 ‘NGO 더 멋진 세상’,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 M미션’ 사례를 바탕으로 교회가 어떻게 공적 기금을 이용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발표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선교와 재정’을 주제로 한 사례 연구와 토의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면 전 세계 선교가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순 장로(선교분과위원장)는 “선교비즈니스와 선교 십일조 등으로 자체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인도 등지의 사례를 접하고 큰 감명과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문의: 02-570-7532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하나님 안에서 연애 잘하고 싶으세요?”

### 대청 연애·결혼 코칭 세미나 ‘청춘클래스’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애·결혼 코칭세미나 ‘청춘클래스’ (이하 청춘클래스)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6일(토)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이룸(정국빌딩 4층, W청년부 예배 처소)에서 그 첫 번째 강의가 막 올랐다.

이날 청춘클래스에서는 책 읽는 사자(사자그라운드 대표)가 ‘크리스천의 이성교제’, 김미경 학장(MK유희브드대학 학장, 전문 소통 강사)이 ‘연애 소통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청춘클래스 2주차(11월 13일)에서는 이정선 사모(이재훈 담임목사 사모)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 ‘크리스천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강의한다.

/ 홍하영 기자

## 예배당 수용인원 50%까지 확대

### 세례 및 입교, 파워웨이브 예배당 예배 재개

11월 1일(월)부터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예배당 수용인원 50%까지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차세대, 대학청년부, 국제부 예배도 허용된 인원만큼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주중예배(토요일예배, 일요일예배, 새벽기도회)를 예배당에서 드리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 예약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하면 된다.

약하면 된다. 멈춰던 세례식 및 입교식도 재개된다. 11월 세례식은 27일(토)과 28일(일), 12월 세례식은 18일(토)과 19일(일)에 진행한다. 세례식에는 예배 별 12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입교식은 11월 14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예배, 양재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 통일과 교회의 역할’

### 통일위원회, 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공동포럼

통일위원회와 한반도평화연구원이 공동개최하는 특별공동포럼이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 통일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다. 11월 25일(목) 오후 1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온

라인(유투브, Zoom) 생중계도 한다. 이번 특별공동포럼 참가신청은 구글 폼(QR 참고)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7440-7109



## 광화문 홀리스타 창립 15주년

### 11월 6일 온라인 감사예배 30여 명 참석

광화문 홀리스타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지난 11월 6일(토) 온라인(Zoom)으로 드렸다. 스타프들과 홀리스타 예배를 사모하는 지체 30여 명이 참석했다.

광화문 홀리스타 15주년 기념예배는 찬양, 배향삼 목사의 말씀, 중보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배향삼 목사(요셉청년부 담임)는 ‘계속 이동하여 나아갔더라’(창 12:7-9)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배 목사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면서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백요한 전도사(요셉청년부)는 “광화문 홀리스타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했고, 이진수 형제(광화문 홀리스타 팀장)는 “다시 모이는 그날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홀리스타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청년들의 새벽기도회다. 광화문, 강남, 대학로, 분당, 사당, 서초, 신촌, 여의도, 양재 홀리스타가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투브 채널)으로 운영하고 있다.

##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내적치유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상처와 쓴 뿌리를 치유하고, 참된 성품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과정이다.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관계기술과 수치심의 치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11월 21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010-2226-0865

## ‘문맥에서 길을 찾다’ 온라인 세미나

그동안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던 구약 본문들을 살펴 보면서 바른 해석과 적용을 돕는 ‘문맥에서 길을 찾다’ 세미나가 12월 6일(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장세훈 교수(국제신학대학원 구약학)가 성숙한 성경 읽기 방법을 제시한다. 성경 본문을 새롭게 배우기 원하는 성도와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3만 원이다. 11월 29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64

##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 11월 19~20일 대전온누리교회 선교세미나

대전온누리교회가 선교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과 11월 20일(토) 오후 2시, 오후 7시 30분 세 차례 열린다. 대전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대전온누리교회 유투브 채널 실시간 방송 및 온라인(Zoom)으로도 참석

할 수 있다.

대전온누리교회 선교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제로 오화평 선교사(살롬이스라엘, <이스라엘 고난과 회복> 저자)가 강의한다.

문의: 042-825-3642

## 하랑다문화센터 봉사자 모집

하랑다문화센터 봉사자를 에타게 찾고 있다. 모집 분야는 심리상담(공감, 경청, 수용), 심리치료(미술, 음악, 연극), 감정코칭, BREBT 치료, 한국어, 영어, 수학 교사 등이다. 상담 교사는 월 1회(토, 주일 택일), 한국어, 영어, 수학 교사는 주

1~3회(수, 토, 주일 택일) 봉사하면 된다. 봉사 장소는 하랑다문화센터(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4, 우주빌딩 2층)다. 하랑다문화센터는 경기도 포천 일대 다문화가정과 다문화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는 예배공동체다. 문의: 010-9129-1476

■ 경기글로벌센터의 호소



/ 송인선 집사(부천온누리교회, 경기글로벌센터)

“베트남 이주여성  
하늘 씨를 도와주세요”

베트남 이주여성 하늘 씨(가명)는 국제결혼으로 한국 농촌으로 시집을 왔다. 자녀도 출산하고 나름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폭력이 문제였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하늘 씨가 자녀를 데리고 나와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이혼했다. 그 이후 경기도 부천에 자리 잡았다. 남편의 폭력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겨 한동안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주변의 설득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글로벌센터를 찾아왔다.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던 하늘 씨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주 작은 베트남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손님으로 오던 베트남 남성 푸른 형제(가명)와 동거를 시작했다. 하늘 씨는 푸른 형제 사이에서 자녀 두 명을 출산하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체류 기간이 만료된 푸른 형제가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늘 씨 혼자 친정어머니와 자녀 3명을 돌보면서 베트남 마트를 운영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고생이었다. 보다못해 경기글로벌센터에서 푸른 형제를 초청했다. 하늘 씨의 국적도 베트남이라 초청 과정이 쉽지 않았다. 다행히 출국 1년여 만에 푸른 형제가 재입국

했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제 하늘 씨 가정에 웃을 일만 남았을 것 같았는데 또다시 힘든 일이 생겼다. 하늘 씨가 푸른 형제를 초청하는 사이 귀화 시험을 통과하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 자녀들의 귀화 신청을 하려면 베트남 대사관에서 자녀들의 국적을 취소해야 하는데 자녀 한 명당 220만 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하늘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 원을 들여 두 자녀의 여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자국민들을 돕는 대사관에 민원을 신청하는데 수백만 원이 든다니 이상할 일이다. 브로커들이 문서대행이라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들을 통하지 않고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민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하늘 씨는 “3개월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귀화 허가가 취소된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벅찬 하늘 씨가 브로커들에게 수백만 원을 지출할 여유도 없고, 지불해서도 안 된다. 혹여나 베트남 대사관과 관계가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있다면 하늘 씨가 두 자녀의 국적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문의: 010-2756-3229

■ 알콩달콩 부부학교 10기 수료 간증



/ 이상희 성도(사랑빛교회)

회복의 은혜, 나누고픈 꿈

지난해 봄부터 딸아이의 사춘기가 시작됐다. 올해 여름까지 정말 많이 아파하고 울었다. 결혼 15년 차인 우리 부부는 늘 신혼부부 같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딸아이의 방황으로 집안 분위기가 매우 어두워졌다. 에너지가 없어서인지 부부 사이 다름도 잦았다. 그러다가 ‘알콩달콩 부부학교’에 등록했다.

부부학교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쏟아졌다. 먼저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남편’이라는 호칭으로 우리 부부 사이에서 사그라들 뻔했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 “부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는 표어는 우리 부부에게 정말 필요한 구호였다.

‘배우자에게 고마운 점 10가지’, ‘배우자에게 미안한 점 10가지’를 쓰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옆에 있어 준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됐다. 아이로 인한 절망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절실히 깨달았다. ‘배우자가 사랑스러운 이유 10가지’를 쓰면서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남편의 발을 씻기는 과제를 하면서는 마음이 썩해졌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결국 나는 눈물을 하염

없이 흘렸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부부는 조별 모임 때마다 끊임없이 웃었고 큰 위로를 받았다. 목자 부부에게 같은 공동체 안의 젊은 부부들에게 사춘기 딸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도,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는데 이 안에서는 가능했다. 결혼 20년 차, 30년 차 되는 선배님들 앞에서 우리 부부는 마냥 실수해도 괜찮았고, 서툴러도 괜찮았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선배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우리 부부는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겼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인들이 느낄 만큼 우리 부부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부부 사이가 편안해지니까 아이에게 좀더 여유롭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부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섬기고 싶은 꿈이 생겼다. 가정사역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 또한 나누고 싶다.

살면서 예기치 않은 풍파를 또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부부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부부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 김지니 성도(OEM영어예배)

창조신앙과 다음세대

“엄마가 틀렸잖아! 우주와 지구는 폭발해서 생겨난 거래!”

우주와 별, 태양계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한글을 읽는 재미를 알아가던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다.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려고 발버둥 치며 키웠는데 세상에 나가 접한 책들과 매체들을 통해 아이의 마음과 생각에 혼돈이 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 문제를 누구를 붙잡고 고민해야 하는지 기도하며 교회 서점에서 보물을 찾듯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창조과학과 창조신앙에 대한 책을 찾아 읽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책을 읽고 강의 들으며 창조신앙을 알아갈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자녀들이 가정 안팎에서 우주의 탄생과 지구의 나이, 수억 년 전에 태어나 멸종되었던 공룡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었다. 이때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창조신앙스쿨에 등록했다.

창조신앙스쿨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진화론에 대한 속 시원한 반박과 창조신앙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천지 창조, 노아의 홍수 사건, 우주의 신비, 공통

과 화석, 지구의 나이 등을 말씀에 비취 하나씩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다. 교회를 다니면서 진화론을 믿거나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이 50% 이상이라는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내 안에도 성장 과정에서 학습된 진화론의 지식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칠 만큼 놀랐다.

왜 우리 아이들이 창조신앙과 창조과학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지 안타깝고 속상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교과서에서 창조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애썼는데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책과 미디어에서 창조과학을 접할 수 있기를, 책을 읽을 수 없는 미취학 아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창조신앙 이야기와 노래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기를 소망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아이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듣기를 기도한다.

■ 여호수아청년부 온라인 기도회



/ 김미소 자매(여호수아청년부)

중보자로, 기도하는 자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부터 여호수아공동체 온라인 기도회 ‘Stand’ (이하 스탠드 기도회)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개인적인 상황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터라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

평소 혼자 기도할 때는 길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졌고, 혼자서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었다. 여호수아공동체와 함께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개인적인 기도제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배웠다.

과거의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져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됐다. 길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느껴졌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한 마디 한마디를 모두 듣고 계신다는 게 조금씩 믿어졌다.

가끔은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래도 스탠드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믿음과 은혜가 분명 존재했다. 그 믿음과 은혜로 주어진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1년 동안 기도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주셨다는 점이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놀라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코로나19 시대에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줄었는데, 온라인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른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방에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청년부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 상황은 어렵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기를 기도한다. 많은 청년이 스탠드 기도회를 통해서 각자 인생에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늘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장로칼럼

생명 살리고, 가족과 사회 지키자



성창섭 장로 (양천공동체)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생명, 가족,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낙태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생명을 죽이고, 가족을 해체하는 일은 어떠한 프레임에 씌워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크리스천들은 계속해서 생명과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를 지켜보고 막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문화명령'이기 때문이다.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다. 가슴 아프게 많은 크리스천이 문화명령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알아도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만 대입하면서 '우리 가족은 문제없이 은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문화명령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 또한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장로연합회가 때로는 오히려도 받으면서 거리로, 교회로 나서는 이유도 문화명령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생명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 11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미프지미소는 손쉬운 낙태를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낙태약이다. 미프지미소가 국내에 허가되면 사실상 누구나 손쉽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미프지미소 국내 도입을 찬성하

는 이들은 "국내 불법 낙태의 약 9%가 암암리에 구한 불법 낙태 약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 부작용과 폐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미프지미소를 도입하자"고 말한다.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크리스천들에게 묻고 싶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과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건강한 가정,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동성애 옹호법이며 가족과괴법이다. 이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그것을 휘방하고 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정교분리'를 외치면서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정치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국회 일각에서 용의주도하고 은밀하고 추진하고 있는 '낙태법 수정 모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저지되지 못하면 차세대가 무너지고, 가정과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민이 가정과 사회를 스스로 파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낙태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뒤엎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특히 다음세대의 참여가 절실하다. 많은 대학청년들과 차세대들이 이 악법들을 막는데 동참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믿음과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고,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문의: 010-5233-2995

권사칼럼

네 분 시숙 전도이야기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빛이나 바람은 비늘구멍만 한 틈이 생겨도 그것을 뚫고 나간다. 대체로 사람들은 역경에 처하거나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약해진다. 그때가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틈이 생긴다.

내게는 네 분의 시숙님이 계신다. 시숙과 제수 사이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관계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숙일지라도, 연세가 들고 몸이 아프면 어린아이처럼 되기 때문에 전도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론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이다.

첫째 시숙은 명망 있고 존경받는 분이셨다. 평소 유교 사상을 지녔던 시숙님은 타인에게 너그럽고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점잖은 분이시다. 나는 집안 행사에서 시숙어른을 뵈 때마다 눈치껏 복음을 전했다.

"시숙님! 은퇴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준비도 서서히 하셔야지요"

막내 제수의 당돌한 제안에도 시숙님은 한번도 역정을 내지 않으셨다.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차차 생각해 보겠다"며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셨다. 은퇴 후 시숙께서 차매와 노환이 겹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한 나는 서둘러 남편과 함께 대구로 내려갔다. 병실에 들어서자 간병인이 우리 부부에게 "환자가 딸 얼굴도 몰라보고 말을 걸면 자꾸 화를 내시니 잠깐 얼굴만 보고 가라"고 주의를 시켰다. 그러나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하며 시숙님의 손을 꼭 잡았다. 시숙님은 화를 내시기는커녕 반

가운 듯 남편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알아보셨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는 열린 복음을 전했다. 놀랍게도 시숙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멘"이라고 답하셨다. 그다음 날 동서들이 병문안 갔을 때에는 시숙께서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셨다고 한다.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잠깐 차매를 멈추게 하신 것 같다.

둘째 시숙은 파킨슨병을 9년 동안 앓았다. 형님이 병간호하느라 고생을 했다. 가톨릭 신자인 형님이 하루는 "저 양반은 성당에 다녀도 믿음이 없다"면서 시숙님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나는 이때다 싶어 "형님, 제가 시숙님께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형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시숙님은 듣기는 해도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나는 손으로 표현하려고 말씀드렸다. 시숙께서는 간절함이 담긴 표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표현을 손가락으로 당신 가슴을 가리키며 확실하게 하셨다. 5일 후에 주님 품에 안기셨다.

셋째 시숙은 건강하실 때 나를 통해 복음을 받고 믿는다고 하셨는데 교회에 나가신 적이 없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천국 소망을 확인할 수 없었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지금까지도 남는다.

넷째 시숙은 폐질환으로 병원 생활을 하게 됐다. 형님이 불심(佛心)이 깊었고, 기독교인인 사돈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전도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자주 병원으로 출근했다. 주변 전도 동역자들과 함께 방문해서 시숙께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으라고 격려했다. 동서는 "믿고 싶거든 세례만 받지 말고 마음으로만 믿어라"면서 누그러졌다. 시숙님은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다. 요즘 그 동서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외롭고 힘들 때마다 내게 전화를 한다. "내 처지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자네뿐"이라고 하신다. 동서도 주님께로 올 날이 가까울 것 같다.

신앙에세이



노희태 목사 (차세대사역본부장)

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셨다. 그러나 개가 된 닭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밤이면 밤마다 산에서 내려오는 늑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가 된 닭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늑대가 된다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늑대가 된 개

가 되었던 닭은 정말 행복했다.

그 행복도 잠시.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나보다 더 쎈 녀석이 있다니!' 늑대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체성의 혼돈을 겪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자꾸 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호랑이가 되고 싶습니다."

개에서 늑대가 된 닭은 드디어 산을 지배하는 호랑이가 되었다. 비교 불가한 힘을 가지고 있던 호랑이는 오랜 시간 만족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멀리서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한쪽 다리에 고통을 느꼈다. 사냥꾼이 쏜 총에 맞은 것이었다. 어렵게 집으로 돌아온 호랑이가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진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보다 더 쎈 놈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 다시는 저의 소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3

우리의 자녀들이

학년 자녀의 엄마가 되었다. 개가 되었다 늑대가 되었다 호랑이가 되었다 고3엄마가 된 닭은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깊은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을 넘어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 노력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높은 자기효용성을 갖게 하기도 한다. 아주 오래전에는 미래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중요한 축이 되기도 했다.

"아빠,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저녁 식사 중에 고등학생 아들이 나에게 질문했다. 원하는 학교에 가고 싶은 염원이 담겨있는 질문이다. 나는 아들에게 대답했다.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바랄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냥 마음에 있는 소망을 기도하면 어떨까? '하나님, 제가

그 학교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어떨까?"

덧붙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권했다.

"하나님, 그 학교에 합격하게 된다면 그 학교에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만약 제가 합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하시고 용기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간의 만족, 순간의 기쁨, 순간의 좌절, 순간의 분노, 순간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11월 18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순간의 결과를 뛰어넘도록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르고 용기 내어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

교리적, 신학적 편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역사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섭리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고, 아들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과연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죽음에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

다. 하지만 많은 계시와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서 독자 이삭을 죽음에 넘기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히 11:19).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비유와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표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가 비유와 같은 사건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믿음의 단계라면 창세기 22장 믿음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믿음입니다. 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죽음에 넘기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복**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받는 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복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옛

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14절).

‘성령의 약속’은 히브리어적인 표현입니다. 약속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속된 성령을 받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연결된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끊으면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성령을 대적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 신앙이 왜 능력이 없고, 율법적이 되고,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높임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온누리회복축제 ‘팬데믹을 이기는 힘’ 이렇게 진행됩니다

**알려드립니다**

- 집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3층 예배당과 온라인(Zoom)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 행사장 내외부에서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장할 때 열체크와 손소독을 해주시고,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주시고.

**등록**

- 접수 마감일은 11월 14일(주일)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예배당 입장은 집회 20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등록할 때 받은 명찰을 항상 착용해주시고.

**온라인 줌(Zoom) 참여**

- 온라인중계는 Zoom으로만 진행됩니다.
- 온라인 줌(Zoom) 참여자들에게는 택배로 교재가 발송됩니다.
- Zoom 링크 주소는 신청자에 한해 개별공지 드립니다.

**회복의 소그룹**

- 온라인 줌(Zoom) 참여자들의 경우, 강의 후 소그룹 조장의 인도하에 회복의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배운 것들을 나누며 회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간식**

- 행사 중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 간식을 나눠드립니다.

**주차**

- 새벽기도회 이후 주차가 제한됩니다. 회복축제 기간 중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자모실**

- 유아를 동반한 경우 자모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탁아**

- 36개월~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의 경우 선착순으로 탁아방이 운영됩니다.

**홍보부스**

- 1층 로비에서 온누리 회복사역을 소개합니다.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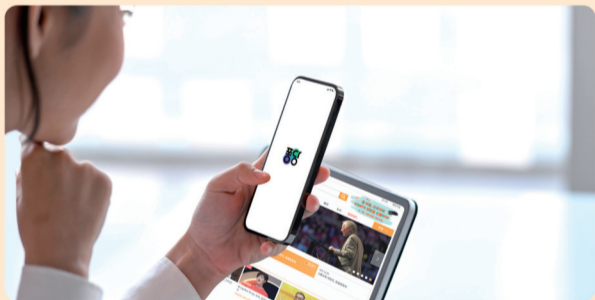
- 010-9578-9538 / 02-3215-3532

**회복축제 일정**

| 시간   | 11/17(수)  | 11/18(목)  | 11/19(금)   |
|------|---|---|--|
| 주제   | 마음의 치유  | 정신의 치유  | 관계의 회복   |
| 세션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순 손인경 교수</li> <li>● 오프닝 이재훈 목사</li> <li>● 강의 1 '내 안의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 박성심 사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순 서킷 드라마</li> <li>● 강의 3 '거리 좁혀서 극복하라' - 박성덕 소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순 김영미(소프라노)</li> <li>● 강의 5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과 관계회복' - 남윤영 박사</li> </ul> |
| 세션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증</li> <li>● 강의 2 '마음과 관계의 회복' - 박상미 소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증: 구인유 작가</li> <li>● 강의 4 '사랑의 비용을 지불하는 치유의 공동체' - 오원웅 박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증</li> <li>● 강의 6 '친밀한 관계의 힘' - 이기원 목사</li> </ul>                        |
| 세션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예배당) '교회에서 만나는 미술치료' - 정은선 박사</li> <li>● 온라인(Zoom) 회복의 소그룹 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예배당) '음악 속에 풍덩' - 김찬 소장</li> <li>● 온라인(Zoom) 회복의 소그룹 2</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크쇼 '강사와의 대답' (사회: 조호영 목사)</li> </ul>                                     |



##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CGNTV의 발걸음에 함께해 주신 2,200여 명의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퐁당' 서비스 확대

모바일에서 만나던 '퐁당'을 내년 2월 15일부터 웹과 스마트TV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fondant**  
'퐁당'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대한민국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바이블킹**  
바이블킹 참가접수  
12월 31일까지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과 함께 순수복음콘텐츠로  
변치않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CGNTV후원이 곧 미디어선교입니다”



신규후원 QR



증액후원 QR

CGNTV와 함께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주세요.

후원계좌 (재)온누리선교재단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

CGNTV  
함께!  
미디어선교